# 아련한 추억들 -송기숙 선생님을 그리며

주 필

송기숙(1935~2021) 선생님이 그예 돌아가셨다. 고문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앓아 오셨기에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날 여기저기서 휴대전화 문자가 들어왔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내 슬픔이 밀려왔다. 진즉 한번 찾아뵐 걸. 졸지에 소식을 듣고 보니 후회막급(後悔莫及)이었다. 그때 그냥 우겨서라도 기어이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몇 달 전. 친구(박병기)한테서 전화가 왔다. '병문안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선생님께서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했다. 한데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사모님께 연락했더니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 나중에 오라' 하셨다고. 그래 다음을 기약하고 미뤘는데. 아, 이렇게 황망히 떠나시다니.

선생님의 별세 소식을 들은 날. 음복(飮福)을 핑계로 통음(痛飮)했다. 선생님과 '교도소 동창'인 박병기와 몇몇 선후배들이 모였다. 모두들 선생님과 인연이 있는 이들이었다. 우리는 오로지 선생님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는 것으로 추모를 대신하기로 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그래도 술 몇 순배가 돌자 이야기도 따라 돌기 시작했다. 먼저 이훈(80·이순신 연구가) 선배가 오래된 추억 한 토막을 꺼냈다.

선생님께서 목포교대에 근무하고 계실 때 얘기다. 주위에서들 권유했다. 전남대 국문과 정익섭 교수를 한번 찾아뵙는 것이 어떠냐고. 기왕에 찾아뵈면서 그냥 맨손으로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양림동 골목 어귀 어느 구멍가게에서 종합선물세트를 하나 샀다. 한데 이게 탈이 났다. 다음날 정 교수가 선생님을 불렀다. "송 군,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놓고 간 선물 말일세. 뜯어보니 구더기가 잔뜩 슬었더구만."

## 유신독재의 심장을 쏘다

그날 음복하는 자리에서는 '5·18광주민중항쟁 사료전집' 얘기도 나왔다. 나의갑(73·전 5·18기록관장) 선배가 말을 이었다. 당시 "금호그룹 박정구(1937~2002) 회장이 극비리에 3000만 원을 기탁했었다는 사실을 아느냐?"면서. '사료전집'은 1987년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으셨던 선생님께서 이처럼 각계의 도움을 받아 발간했다. 강연균(81) 화백은 당시 자신의 작품을 내놓아 책 발간비에 보탰다.

그날 술자리 대화에는 당연히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이 빠질 수 없었다. 한때 모두들 강제로 외워야 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名文)으로만 알고 있던 그 국민교육헌장이, 실은 낡은 국가주의 사상으로 점철된 졸문(拙文)이었다는 사실을 난 그때 처음 알았다. 선생님은 1년간 복역한 뒤 석방되었지만 복직이 되지 않은 채 5·18을 맞았다. 그리고 시민군 수습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해서 내란죄를 뒤집어쓰고 또다시 구속되어 고초를 겪었다.

교육지표 사건이 있었던 1978년, 나는 전남대 국문과 4학년이었다. 그해 6월 선생님이 잡혀가셨다. 먼저 풀려나신 명노근(1933~2000, 당시 영문과 교수) 선생님이 국문과 사무실에 들르셨다. "송 선생이 '중정'에 끌려가셨네." 명 선생님은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쏟으셨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스승은 부모와 같거늘. 선생님이 잡혀가셨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당시 철학과 4학년이었던 친구 박병기(68·전 전남대 철학과 교수)와 함께 중앙도서관으로 달려가 집회와 시위에 동참했다. 그리고 캠퍼스 안까지 난입한 경찰에 체포돼 서부경찰서로 연행됐다. 주동자 색출 작업이 밤새워 이뤄졌다. 다음날 나는 풀려났지만 병기는 끝내 나오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교육지표 사건이 있기 몇 달 전. 우리 국문과 학생들은 강원도로 졸업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설악산 어느 여관방에서였다. 술기운이 어느 정도 오른 탓이었을까. 갑자기 선생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설(?)하시는 거였다. "지금 비밀리에 전국적으로 모종의 거사를 준비 중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거사가 바로 교육지표 사건이었다.

우리는 서울을 거쳐 광주로 돌아왔다. 그때 선생님은 서울에서 잠시 자리를 이탈하셨는데, 아마도 백낙청(84·당시 서울대 해직교수) 선생이나 성래운(1926~1989, 당시 연세대 해직 교수) 선생 등과 접선(?)했을 것이다. 선생님이 '수학여행 인솔 교수'로 일부러 나선 것도 사실은 그 '비밀 접선'을 들키지 않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나중에 알았다.

## 걸출한 이 시대의 의인

선생님과 관련된 또 하나의 추억은 월간 '예향'에 당신과의 인터뷰를 실었던 일이다. 이제는 누렇게 빛이 바랜 예향 창간호(1984년 10월호)를 서재에서 찾아내 다시 읽어 본다. '이달에 만난 사람 -송기숙 교수 어떻게 지냈소'. 인터뷰는 선생님에 대한 인물평으로 시작된다.

"송기숙은 감추거나 꾸미는 것이 없고 망설이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없다. … 그의 웃는 얼굴을 볼 때면 나는 가끔 우리나라 가면극의 탈을 연상하곤 한다. … 그런데 놀라운 것은 봉건사회의 억압과 질곡 밑에서도 그처럼 찢어지게 웃는 얼굴을 창조했던 민중의 넉넉하게 이어진 마음의 바탕, 그것을 송기숙 씨가 이 살벌한 경쟁의 시대에도 굳게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학평론가 염무웅) "문인 중에서 쇠전에 넣어 놓고 한참을 못 가려낼 사람을 고른다면 송 선생만 한 이가 다시 있을까. … 그러나 그는 정의로 기준을 삼아 세상을 살아온 어질고 바른 대인이었다." (소설가 이문구)

인터뷰 기사에는 이런 얘기도 나온다. "교육지표 사건 때는 들어가기 전날 밤에 아내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금방 나올 테니 걱정 마라. 아내는 비교적 내 말을 곧이듣는 편이니까 속으로 겁은 났겠지만 각오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금방 나온다'는 남편의 말에 깜빡 속은 사모님께서는 이후 스낵코너에서 국수를 파는 등 갖은 고생을 해야 했다.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붓 하나로 헤쳐 오신 선생님. 선생님은 소설가로서도 많은 문학적 업적을 남기셨다. 하지만 그보다 선생님은 서슬 퍼런 박정희·전두환 독재의 폭압에 굴하지 않았던 '실천하는 지식인'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선생님을 두고 고은 시인은 "천연기념물 송기숙/ 그가 있어 광주가 참다웠다"('만인보')라고 읊었다. 선생님은 그야말로 '걸출한 이 시대의 의인'(박석무 선생의 표현)이었다.

아, 이 시대의 의인이자 대인이셨던 선생님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셨다. 더 이상 선생님의 그 온화한 미소를 볼 수 없다니 새삼 비통해진다. 그 구수하고 텁텁한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니 새삼 아픔이 밀려온다. 선생님! 이제 모든 짐 내려놓으시고 편히 잠드소서.

# "2040 광주 도시경관 이렇게 만들어요"

### 광주 경관계획 시민참여단, 미래비전 시민제안서 시에 전달

### 2023년 1월까지 경관계획 수립 예정…랜드마크 등 10개 조문

광주시가 오는 2040년 도시경관 계획에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40 광주 경관계획 시민참여단으로부터 광주 도시경관의 미래비전이 담긴 시민제안서를 전달받았으며, 2023년 1월까지 2040 광주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도시경관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시경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전문가 참여 없이 순수한 시민 103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10월1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경관계획 소양교육과 3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광주시 도시경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시민제안서 10개 조문을 도출했다.

시민 제안서를 요약하면 ▲시민과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 나가는 경관계획, 경관심의, 경관사업, 경관협정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광주다운 도시경관 조성 ▲비전이 있는 미래지향형 도시경관 랜드마크 구축 ▲획일적인 층수제한 대신 품격 있는 특별한 건축물 신축 ▲용도에 맞는 다양한 도시경관 조성 ▲문화·예술이 넘쳐흐르고 젊음 가득한 구시가지 특화경관 조성 ▲산과 공원을 누구나 가까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 ▲도심 수변경관을 밝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 ▲쉽고 편하게 걸을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가로경관 구축 ▲빛과 밤이 조화로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감성도시 조성 등이다.

광주시는 전달받은 시민제안서를 바탕으로 오는 2023년 1월까지 2040 광주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광주의 도시경관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눠 주신 시민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제안내용을 2040 광주 도시경관계획에 성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수영선수권대회·마스터즈 수영대회 취소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 사업으로 추진한 제1회 광주 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결국 올해도 열리지 못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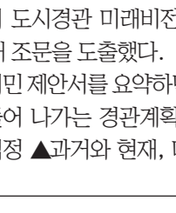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두 대회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대회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오는 18~24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5000명을 넘어서고, 참가자의 40% 정도가 코로나19 집단 확산지인 수도권 거주자인 점 등을 고려해 대한수영연맹과 협의를 거쳐 취소 결정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o.kr

'관광두레·스타트업 깐부데이 페스타'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도청 윤선도홀에서 열린 '관광두레·스타트업 깐부데이 페스타' 행사에서 관광 로컬기업에서 생산한 전시·판매물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임야 삽니다 3천평 이상
지분환영. 010-6837-4700

덕남동, 임야 지분, 200평 개발호재多 투자
매-4천만원.010-3605-5000

중앙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신용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무료 大 특강
99% 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시~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제시!!
장 소 3층 길부동산멘토스쿨(힐스테이트 3단지 앞)
일 시 2021.12.22(수), 23(목) 오후2시/ 7시
문의전화 010-5632-5209(사전예약)
※세미나 참석하신분은 1:1투자 상담시 상담료 무료
강/의/내/용
1강의 광주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
- 꼭 알아야 할 광주 중요지역 분석
- 3천만원으로 부자될 수 있는 아파트 갭투자
- 수익형 부동산의 과학적 투자 가치 분석 기법
2강의 "황금 개발지 토지" 성공 투자법 大공개
- 광주/전남 지역 내외 "최고 가치" 매물 大 공개
- 농지법 개정에 따른 필승 농지 투자법 大 공개
- 소액 토지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 공개
- 전국 지역 예타면제사업 토지 집중분석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MTN머니투데이-김생민의 비즈정보쇼
(2017년 우수기업 선정 방송)
(2017년 스포츠 서울 혁신 한국인 선정)
(현) 길부동산멘토스쿨 대표
(현) 길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LBA법률중개사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30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라브즙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체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럽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m2(1.276평) 매 ㎡ 9십만원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사 람 찾 음
서양순, 女, 1963년생
"새미엄마"로 부름
※좋은뜻으로 찾음※
찾는사람-최선규
연락처 H.010-3605-5000

아파트 상가 매매
2억 9,000만원
1,500세대 독점상권
· 물건: 나주 이노시티 애시앙 아파트
· 전용면적: 32.76㎡ [10P]
· 매매가: 29,000만
· 부가세: 1,100만 환급
[주]초록공간
010-6786-2600


## 합병공고

1. 줄온돌 주식회사("갑")와 주식회사 서원엘앤에이치("을")는 상법 제522조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3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에 합병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3.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6일

"갑" 줄온돌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34 (매곡동)
대표이사 양 홍 준

"을" 주식회사 서원엘앤에이치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34 (매곡동)
대표이사 양 홍 준

## 산행안내

12월19일(일)
▲광주kj산악회 12월19일(일) 강원도철원&한탄강주상정리잔도길"계방"트레킹, 염주체육관06:00,동아병원06:05, 롯데백점06:10,광주역06:15, 문예후문06:25,비엔주차장 06:30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